

요약

서울시민 2021년 2/4분기 체감경기는 전 분기보다 올라 90선 회복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21년 2/4분기 표준화지수 기준 92.9로 전 분기 대비 3.9p 올라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90선을 회복하였다.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요소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에 비해 3.7p 상승한 76.6이며,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보다 0.8p 하락한 95.2로 나타났다.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00.3으로 전 분기 대비 2.3p 올라 기준치(100)를 웃돌았고, 「미래소비지출지수」도 전 분기보다 1.7p 오른 87.3을 기록했다.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식료품비'와 '교육비'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전 분기보다 상승한 가운데 '의류비'(5.7p)와 '문화·오락비'(5.2p)가 전 분기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주거비'가 98.2로 가장 높았고, '문화·오락비'가 73.5로 가장 낮았다.

'생활물가 안정' 시급 ... '코로나19 방역'·'부동산시장 안정화' 중요

현재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서울시민의 13.8%는 '만족'한다고 응답했지만 41.3%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락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4.2%로, '상승했다'고 응답한 비율(6.3%)보다 월등히 높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장에게 바라는 가장 시급한 1순위 경제정책은 '생활물가 안정'이 38.5%로 가장 높게 꼽혔고, 중요하게 수행해줬으면 하는 경제정책으로는 '코로나19 방역'(4.38점)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4.33점)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시민의 23.3%가 새로운 서울시장 임기 동안 민생경제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1년 후 서울시 민생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생활물가 안정'(39.1%)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서울지역 소상공인 체감경기 BSI는 3월 급상승 후 2개월째 하락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5월 「체감경기 BSI」는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3월(62.4) 이후 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53.6을 기록하였지만, 전 분기에 해당하는 2월(42.8)보다 10.8p 상승하였다. 「전망경기 BSI」는 올해 2월 큰 폭의 하락을 보인 이후 상승 전환했지만 5월부터 다시 내림세로 전환하면서 70.9로 마감하였다. 서울지역 전통시장 「체감경기 BSI」는 51.7로 지난 1월 이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통시장 「전망경기 BSI」는 6월 63.9로 전월 대비 큰 폭(14.2p)으로 하락하였다.

“앵커시설 운영에 긍정적… 현재에 만족 말고 더 나은 역할 기대”

서울시는 특정 지역에 밀집한 서울형 전략·첨단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산업·특정 개발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 앵커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4곳을 대상으로 민생현장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앵커시설들은 권장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권장업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대해, 업계 종사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향후 더 나은 앵커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바람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종로 귀금속지구의 앵커시설인 서울주얼리지원센터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앵커시설 운영의 장점으로 지원사업 폭의 확대, 후진양성과 같은 협회 사업 지원, 업종 맞춤형 지원 등을 꼽았다. 다만, 귀금속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액셀러레이팅 사업 도입, 창업공간 마련, 성공사례 창출을 활용한 산업 비전 제시, 귀금속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적극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성수 IT지구의 앵커시설은 ‘서울창업허브 성수’로, 당초 ‘성수IT종합센터’에서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였다. 현재는 소셜벤처가 많은 성수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입주공간 지원, 민간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액셀러레이팅’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앵커시설 운영의 장점으로 강남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 쾌적하고 저렴한 입주공간 지원, 입주기업 간 시너지 창출 등을 제시하였다. 다만, 서울시와 센터에 대한 바람으로는 행정절차 간소화, 임대 기간 연장, 직무별 네트워킹 및 자기계발 기회 마련 등이 있었다.

마포 디자인·출판지구지원센터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인 출판사, 소규모 스튜디오, 독립서점 등을 대상으로 흥대 앞 문화적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었다. 출판 업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경쟁력 있는 신규 업계 입직자 발굴, 신진작가 양성, 교류의 장 마련 등이 주요 사업이다. 센터 운영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성격의 공간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과 네트워크 허브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동대문 한방지구의 앵커시설인 서울한방진흥센터는 한방을 문화적으로 체험하고, 교육·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센터의 이런 접근은 산업진흥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달리 할 수 있지만 방문객의 증가가 한방산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서울한방진흥센터가 건립되면서 상인들의 자부심이 높아졌고, 지역의 주차난 해결에도 도움을 줬지만 센터의 역량을 서울약령시 내 소상공인 발전에 더 집중해줬으면 하는 업계 관계자들의 바람이 있었다. 그 외에도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해 주민연계형 야간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K-pop 열풍과 함께 세계에 한방문화를 알리는 데 서울한방진흥센터의 역할을 기대했다.